

# 주장사파라...

④ 서암 스님의 '道'



조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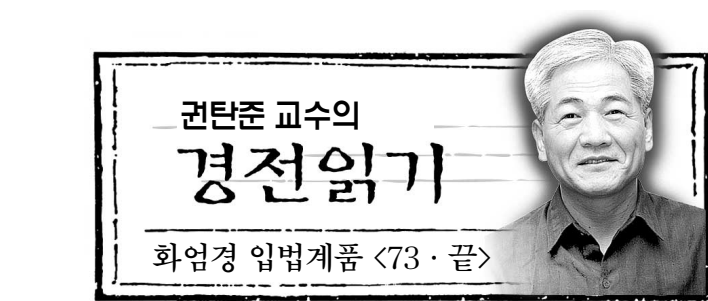
서암 스님(1914~2003): 경북 안동 生. 예천 서약사에서 화산 스님 은사로 득도. 금강산을 비롯 전국 선원에서 정진. 조계종 총무원장, 원로의장, 종정, 봉암사 조실 등 역임.

〈화엄경〉 '입법계품' 강의를 연재하였던 지난 일년 반 동안은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다. 첫걸음을 시작하는 신철 대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로 삼심이 지쳐있는 가운데, '입법계품 강'의 원고 작성은 나에게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화엄경〉 '입법계품'은 사실 쉽지 않은 경전이다. '선재동자'와 '53선지식' 등 몇몇 단어만 일반인들의 입에 친숙해 오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경전의 지평도에 비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 까닭은 53선지식의 법문 내용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입법계품' 강의 연재를 시작하게 된 것은 가끔씩 보던 경전이고, 또 더러 강의도 해 보았던 터라, 이 기회에 '입법계품' 공부도 제대로 해보고, 또 일반인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보려고 하는 유혹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혹은 아름다웠지만, 그 과보는 역시 극심한 고통으로 돌아왔다. 우선 내용을 쉽게 전달해야 하는데, 내 자신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원고 마감시간을 훨씬 지나서 나 때문에 신문이 못나오게 된다고 야단인 지경에도 앞뒤가 꼭 막혀서 끝까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늦은 밤 계룡산 자락의 교정을 배회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른 새벽에 교내 법당에 올라가 부처님께 왜 이렇게 내용을 어렵게 설해 놓았냐고 항의하고, 부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를 하기도 하였다.

나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원고지 12매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12매 안에 한 선지식의 법문내용의 줄거리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곁들인다고 하는 것은 명민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73·끝>

연재를 마치며

바른 삶 추구하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

진실·자비로운 마음이어야 법계 들어가

하지도 못하고 글솜씨가 없는 나에게 그야말로 난감한 일이었다. 이래저래 연재가 끝난 이 마당에 나름대로 애를 썼다고는 생각하지만 참으로 미흡한 심정이다. 그리고 부처님과 독자들에게 진실로 죄송할 따름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편지 않는 심정을 가지게 된 강의였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입법계품'의 교설에 감동하고 부처님께 깊이 감사드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선재동자의 구법이야기는 선재라고 하는 동자의 구법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구법이야기로서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법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세계로서 거짓됨이 없는 진실한 세계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법계는 중생들의 미혹된 세계와 상대되는

세계이다. '법계에 들어간다(入法界)'고 하는 것은 미혹된 세계에서 진실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입법계품'은 선재동자의 구법이야기로써 그것을 구체화하고 있다.

선재동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어렵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절절히 참회하며 새로이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자 발원(發願)하는 것은 실로 감동적이다. 이 원심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이다. '입법계품'에서 이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 법계에 들어가게 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할만한 가르침이다. 보리심과 같은 원심은 빛과 빛이 오는 근원인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찬탄과 귀의를 수반하고, 그 가치를 자기 스스로 구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선재동자가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부

단히 법을 구하는 것은 선지식들의 가르침(법문)이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진실한 가르침(법문)은 인간과 진리를 하나가 되게 하며, 법(法)이 구체적인 인격에 구현됨으로써 여러 가지 지혜롭고 자비로운 공덕을 갖춘 인격을 출현시켜서 인간이 부처가 되게 하는 인격적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미혹됨이 없는 세계이며, 스스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참생명을 발동하는 세계이기도 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입법계품'을 비롯한 <화엄경>의 교설들이 너무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어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야말로 <화엄경>의 가르침을 단순히 머리조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많은 인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선재동자의 구법이야기로 그럴듯하게 엮어진 단순한 얘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진실로 '입법계품'은 광대한 자비의 원을 일으켜 부단히 진실을 추구해감으로써 현실세계에서 항상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계품'을 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가도록 하는 법을 설하는 가르침이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다. 법계는 결코 지식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진실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열고 실현함으로써 얻어지지 열릴 수 있는 세계인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다음주부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형조 교수의 <대승기신론>강의가 연재됩니다.

## 네터즌 교리문답

### 사마디, 삼마파티, 디야나의 차이점은?

**문** <원각경>을 보다가 사마디(samādi: 정지, 적정), 삼마파티(samāpatti: 정해, 적조), 디야나(dhyana: 정려, 적멸, 선나) 등의 용어를 보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ID '초보자')

**답:** 사마디 즉 삼매란 삼마지(三昧地) 삼매지(三昧地) 등과 같이 산스크리트 samādi의 음역이다. 마음을 한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정(定)으로, 또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등지(等持) 등으로 의역한다. 삼마파티(samāpatti) 또한 정(定)으로 번역되며 마음이 평등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등지(等至)로 의역한다. 선정(禪定)이라고 불어 쓸 때의 정(定)의 의미이다. 디야나(dhyana) 즉 선(禪)은 범어 선나(禪那)의 약칭으로, 사유수(思惟修)라 번역하며, 신역은 정려(靜慮)라 한다. 사유수는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자세히 사유하는 수행이란 뜻이다. 정려는 고요히 생각하는 것이다. 곧 한 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는 것을 선이라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지(止, 집중)와 관(觀, 관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마디(samādi)는 오직 지(止)와 정(定)의 의미만을 갖는다. (ID '서림')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선의 세계 ④

### 교외별전(敎外別傳) - 8

불교, 적어도 대승불교의 세계관, 존재론에서는 불일불이(不一不二, 不一不異)라는 역설이 핵심 명제이다. 그 불이라는 개념은 워낙 근본적인 역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변으로는 온전하게 헤아리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 개념으로 표현하려는 세상의 진상은 불가사의(不可思議)에 해당한다. 언어문자로 온전하게 담아낼 수 없음을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역설적인 개념으로, 더욱이 이중부정(二重否定)으로 표현한 것이다.

불이라는 개념은 고대인도 종교사상에서도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불교의 불이 개념은 근본 교리의 무아(無我), 연기(緣起), 중도(中道) 교의를 대승불교 사상에서 확장하고 변용한 명제를 담고 있다.

나 가르주 내(龍樹)라고, 공(空) 사상을 천명(闡明)한 대승불교 사상가가 있다. 흔히 유식(唯識)사상과 중관(中觀)사상을 대승불교 사상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데, 유식사상은 우리의 의식에서 무명(無明)이 일어나고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의식의 심층 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밝혀내었고 중관사상은 공(空)의 이치를 치밀하게 논증하였다.

그 가운데 중관사상의 태두가 나가르주(龍樹)이다. 그의 저술인 <중론(中論)>에 유명한 팔불중도(八不中道), 즉 여덟 가지 부정으로 중도를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불일불이'도 여기에 들어있다. 모든 것이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不生不滅),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來去不常),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來去不常),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며(來去不常)라는 데의 의의(意義)에 있지 않고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언어문자와 그 분별의 틀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오히려 진상을 찌그러뜨리는 결과만 낳는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다. 그것이 연기(緣起)의 이치라는 얘기이다. 보다시피 여덟 가지 부정이 들쭉잡아 네 개의 역설적인 명제를 이룬다. 그리고 그것은 무아(無我), 무자성(無自性), 공(空)의 이치를 바탕으로 중도(中道)를 표현하는 명제이다. 연기, 중도, 공의 이치는 굳이 따로 잡아내자면 그렇게 이중부정의 역설로나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겨우로 말하자면, 우리는 역설 내지 모순을 그대로 온전하게 담고 있는 것이 연기, 중도, 공의 이치이다.

모두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개체에 초점을 두고 보면—달리 말해 유아(有我), 분별(分別)의 입장에서 보면—모든 것이 나고 죽거나 오고 가는

존재로 보이지만, 전체 내지 보편의 장에서 보면—분별을 넘어 무아(無我) 또는 연기의 장에서 보면—그런 게 아니라는 식의 공색한 설명이나 갖다 붙일 뿐이다. 그러나 이 이치는 궁극적으로 워낙 설명이 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과 언어수단은 늘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지만, 역설과 모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역설이 아니요 모순이 아닌 것처럼 왜곡할 때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같음이 풀리고 마음이야 편하겠지만, 진상에 멀어져버리고 만다. 그 역설과 모순을 진정으로 푸는 길은 생각이야 해아라는 데의 의의(意義)에 있지 않고 논리적인 설명과 이해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언어문자와 그 분별의 틀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오히려 진상을 찌그러뜨리는 결과만 낳는다.

1		7	8	
		2	9	10
3	11			4
			13	
	5	14	15	
			6	

정답은 26면에

세로

1. 마음과 마음으로 뜻이 서로 통함 7.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셔놓은 집 8.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9. 음식에 간을 맞추는 검은 액체 10. 선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 11. 나옹 스님이 입적한 절, 경기 여주 불미산에 있음 12. 손수가 지은 범법책 13.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14. 삶과 죽음 15. 단단하고 단맛이 나는 감.

## 상식퍼즐

**가로** 1. 송강호가 이발사로 등장하는 영화, 호자동 000 2. 당간을 받쳐 세우는 기둥 3. 몸과 마음 4. 자식과 손자를 통틀어 일컫는 말 5. 죽고 삶에 상관없이 끝장을 내려 함 6. 부처님 가르침을 감로(甘露)에 비유하여 하는 말.